

“오월광주, 그날의 아픔 노래·연극으로 승화”

ACC, ‘오월어머니의 노래’·‘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예술로 민주화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연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원에서 펼쳐진다.

ACC는 ‘오월어머니의 노래’를 오는 24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이고 24~25일 이틀간 ACC 열린마당에서 ‘2025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화째를 맞은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과 슬픔, 그리움을 직접 노래로 풀어낸 작품이다. 공연의 주인공인 ‘오월어머니’ 15명이 무대에 올라 남편과 자식, 동생을 잃은 한과 설움을 노래하며 인생 이야기를 회고한다.

공연은 △1부 ‘아내의 노래’ (9곡) △2부 ‘누이의 노래’ (1곡), ‘어머니의 노래’ (5곡)로 구성된다.

특히 ‘어머니의 노래’ 중 고 문제학 군

24~25일 예술극장 극장2·열린마당 45년의 한과 설움 노랫말에 담아 내달 18일 일본 오사카 공연 열려 ‘아픔 공유’…제주4·3도 함께 조명 “단순한 공연 넘어 기억·치유의 장”

의 어머니 김길자씨의 사연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바 있다. 올해도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해씨가 공연에 참여해 오월어머니들의 진심 어린 사연을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ACC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동 제작한 공연으로,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5·18 45주년을 기념해 광주 공연뿐 아니라 다음달 18일 일본 오사카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모든 공연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올려 퍼진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된 ‘오월어머니의 노래’ 현장. ACC 제공

은 ACC 공식 유튜브와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월문화주간’의 일환으로 ‘2025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도 마련된다. 이 마당극제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이라는 한국 역사의 변곡점에 있던 격정적 사

건을 주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월의 열기, 민주화의 열망을 많은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당극 공연으로 찾아온다.

24일 오후 5시40분에는 놀이패 신명이 선보이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가 무대

에 올라 1980년 5월, 흔적 없이 사라진 행방불명자들과 가족들의 기억을 곁과 함께 표현한다. 이어 25일 같은 시간에는 극단 세이레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공연된다. 이 작품은 제주4·3 당시 일본으로 밀항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떠나야 했던 이들의 고통과 상처, 그리움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이번 마당극제는 5·18기념재단과 4·3 평화재단이 함께 참여해 동질적인 역사적 경험을 문화예술로 있는 협력의 장이기도 하다. 두 공연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오월어머니의 노래’와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는 단순한 예술 공연을 넘어, 이땅의 평범한 이들이 겪은 비극을 예술로 증언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되새기는 진실의 울림”이라며 “ACC는 앞으로도 5·18정신과 지역 문화예술을 함께 품고 세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 참여 작가·단체 모집

내달 15일까지 광주 기반 10팀 무료 대관·설치·홍보물 제작 등

광주예술의전당은 다음달 15일까지 2026년 전시지원 공모전에 참여할 작가 및 미술 단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는 지역의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지원해 지역 미술문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개최의 기회와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시각예술 전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작가 또는 미술단체 총 10명(팀)이다.

자격요건은 단체는 창단 1년 이상, 단체전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작가)은 개인전 3회 이상, 광주시

소재 대학에서 미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 또는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시에 등록된 경우다.

제출서류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시계획서, 작가 약력, 작품 이미지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다음달 16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결과발표는 다음달 27일이며, 최종 선정되는 작가와 단체는 갤러리(416m²) 무료 대관과 작품 설치 및 리플렛, 전시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타(他)같이, 함께 누리자!’… 2025 문화다양성 행사

24일 광주광역시청 1층서 11개 분야·56개 부스 운영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참여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장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 ‘타(他)같이, 함께 누리자’를 슬로건으로 2025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다양성 주간에 펼쳐질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외국인주민센터와 국제교류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시민의 날’ 행사와 ‘제60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축제 참여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인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 내외부에는 총 56개 부스가 마련된다. 각 부스는 ‘다양성’을 주제로 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도 함께 참여



지난해 열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현장. 광주문화재단 제공

해 △핀버튼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만국기 및 팔찌 만들기 △피자 맞추기 등 다양한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 △친환경 비누 직접 제작하기 △‘세줄 리멤버’ 키오스크를 통한 사진 촬영 및 행사 소감 남기기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동아리 축제,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노인복 체험과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그리고 다문화 놀이와 문화체험이 펼쳐진다.

박찬기자

전남의 섬 문화 다채롭게 조명… ‘2025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25일까지 목포 평화광장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전남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5 문화다양성 주간행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21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매년 운영하는 UN이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월 21일)’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주간행사(5월 21일~27일)다.

전라남도도는 지난 2016년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

산, 충북과 함께 ‘다름을 담다, 문화로 잇다’라는 주제로 2025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추진하며, 전남은 ‘섬’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는 섬을 형상화한 전시하우스가 운영됐다. 섬에서의 생활상, 섬의 독특한 풍습, 新 자산어보 등 섬과 관련해 해녀, 계절노동자 등 섬사람의 삶과 섬에서의 희로애락, 섬 생물다양성 등 풍성한 섬 콘텐츠가 펼쳐졌다.

메인행사는 24일 오후 5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남문화재단의 ‘ESG 경영 선언식’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현대 무용 단체인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비금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특별 공연과 티셔츠 캠페인 등이 차례로 특별무대에서 선보인다. 체험부스에서는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일원에서 바다와 섬, 해양생물과 관련한 개성 있는

예술체험들로 도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 도내 274개의 유인섬이 가지는 문화적, 국토수호 및 해양영토 확보의 관점, 생태적 가치 등을 기억하기 위한 티셔츠 캠페인 ‘나의 섬을 기억해!’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전남개발공사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 전남 첫 발전 개시를 홍보하기 위한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과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문명의 이웃들’ 홍보 전시도 준비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의 수많은 섬,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상을 통한 다양한 의미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재)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시기획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내달 15일까지 이메일 접수 9월7일부터 15일간 교육 운영

(재)광주비엔날레가 2025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시기획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21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은 광주비엔날레가 축적한 미학적 담론, 전시기획 실험 등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 전반을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기획한 한·미·영 5개 대학 연계 국제 교육 프로그

램인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를 모태 삼아 2009년 국제큐레이터코스로 시작한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은 올해로 10회 차를 맞는다.

이번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은 ‘국가성과 큐레토리얼 실천’을 주제로 동시대 미술 현장과 이론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국가와 민족 등 공동체 단위에 대한 비판적 재고로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주권과 공동체 개념, 거버넌스 체계와 문화를 동시대 미술로 고찰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35세 이하, 영어나가자로 현대미술 및 관련 분야 종사

자, 전시기획자, 비평가,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등록금 전액과 숙소가 제공되며, 해외 참가자의 경우 항공비 일부가 지원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7일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하고, 모집 결과는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al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